

10월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전남의 비전·저력 담아 화합무대 연출

개·폐회식 연출계획 보고회

'생명의 울림 속으로' 주제

응미하는 전남 다양한 퍼포먼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는 10월 개막하는 전국체전·장애인체전을 통해 전남의 비전과 저력을 전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지난 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개·폐회식 연출계획 보고회를 열어 울림속에 버금가는 대대하게 연출하기로 했다. 보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소영호 목포시 부시장, 도 실장 등 참석했다. 개·폐회식 연출을 맡은 박명성 총감독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연출 구성과 주제, 연출 방식을 보고했다.

이번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은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을 콘셉트로 전남의 소리와 무용, 연기자와 관객이 함께 완성하는 개·폐회식으로 구성한다. 특히 전남의 자연, 산업, 미래 청사진을 상징하는 대소도구를 사용한 수상 퍼포먼스 연출을 통해 전남만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생명의 울림 속으로'를 주제로 미디어와 접목한 최첨단의 무대 체계를 활용해 뮤지컬과 마당놀이 형식으로 표현한다는 방침이다.

제104회 전국체전 개회식은 '응미하라, 전남의 땅울림'을 주제로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제1막 '대동하라, 태고의 전남'에서는 바다의 에너지를 담은 전남의 소리 울림을 표현하고, 제2막 '선포하라, 신전남시대'에서는 생명의 숲과 사랑을 땅의 울림으로 표현한다. 제3막 '나아가라, 전남의 울림이여'에서는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되는 전남을 세계를 향해 뿜어내는 거대한 울림으로 표현한다.

전국체전 폐회식은 '울림 하나되는 숲'을 주제로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전국체전 기간 전남에서 열정을 바친 선수들의 땀과 시간이 또 다른 울림이 돼 더 큰 내일의 희망을 꿈꾸게 하는 내용을 담는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은 '높이 퍼져라 전남의 소리울림'을 주제로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전남의 소리, 우리 몸으로 내는 소리가 모여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고 화합의 장으로 만들고, 화합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김영록 지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을 국민 대화합과 감동의 무대로 만들고, 전남이 이제는 더 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104회 전국체전 개회식과 폐회식은 목포종합경기장에서 10월 13일과 19일 각각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은 11월 3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폐회식은 11월 8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녹색에너지연구원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

에너지절약 실천·도민 홍보 나서

녹색에너지연구원(주동식 원장)이 이달부터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

전 직원은 앞으로 '하루 1kWh 줄이기' 실행을 위해 여름철 실내온도 섭씨 26도 유지(0.4kWh/일), 미사용 조명 소등(0.4kWh/일), 미사용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0.3kWh/일), 고효율 LED조명 사용(0.5kWh/일)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실천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관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울림을 기반 삼아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도에서 출연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연구기관으로, 해상풍력,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공직자 마음 위로 심리상담

전남도 진료비 30만원 지원 동·서 권역 상담실 추가 설치

전남도가 동·서부권에 심리상담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스트레스, 우울, 탈진 증후군 등 격화로 지친 공직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심리상담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전남도는 청사 내에서 주 2회 운영하던 심리상담실을 올해부터 주 3회로 확대해 직원들이 업무 중 자유롭게 상담 받을 수 있고, 민간전문병원 진료가 필요한 직원에게는 1인 최대 30만원의 심리상담진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분청을 제외한 동·서부권에 근무하는 직원 상담 기회 확대를 위해 동부청사와 전남도농업기술원에 심리상담실을 설치하고 심리상담사를 추가로 채용·운영할 예정이다.

또 장시간 앉은 근무하는 업무 특성을 반영해 목, 허리, 손목 등의 통증 전문가가 1대1로 진단하고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피지컬 테라피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심리상담사업 확대 운영 후 직원 호응 및 만족도를 살피고 2024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한 심리상담실은 평균 600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상담실을 이용한 직원들은 불안 해소와 대인관계 개선 등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해수과학원 꽃게 자원 조성 소득증대 성과

진도 조도 해역 75만 마리 방류

2021년 이후 자원 회복세 뚜렷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지난 6일 꽃게 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어선어업 주요 소득 품종인 어린 꽃게 75만 마리를 진도 조도해역 일원에 방류했다.

<사진>

진도 꽃게 생산량은 전남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남획 등으로 최근 생산량이 저조해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원은 2021년부터 인공종자를 생산, 지난해까지 130만 마리를 방류했다. 방류를 시작한 2021년 이후부터 꽃게 자원량이 회복되면서 진도에서 2년 연속 1000t 이상 생산량을 올려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봄 꽃게 철 진도 조도해역 일원에서 어획한 꽃게 위판량은 545t, 150

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55t, 103억원보다 190t, 47억원이 증가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꽃게는 지난 5월부터 진도해역에서 복부에 알을 품은 '외포란 꽃게'를 확보해 부화, 먹이생물 배양 공급을 통해 생산한 종자다. 진도 꽃게잡이 어업인들은 "2021년부터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원에서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를 꾸준히 방류해 꽃게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어업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어린 꽃게를 지속해서 방류해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주요 소득 품종 자원량이 줄고 있어 방류에 대한 어업인 요구와 기대가 크다"며 "지속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방류사업을 확대하고 사후 효과분석 등을 통해 수산 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건축사회 수목비엔날레 성공 맞손

홍보·관람객 유치 등 업무협약

(제)전남문화재단과 전남건축사회가 지난 6일 전남문화재단 문화마당에서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수목비엔날레 홍보와 관람객 유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근식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장, 한형민 전남도건축사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수목비엔날레 홍보, 단체관람 협조, 홍보물 지원, 관람편의 제공에 협력하게 된다.

전남건축사회는 1965년 설립해 12개 지역건축

사회와 387개 회원사로 구성됐다. 건축사업 자문, 건축물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사회공헌활동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박근식 사무국장은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입장권 구매 및 관람객 유치에 적극 협력해줘 감사드린다"며 "세계에서 유일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성공 개최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송고한 조화 속에서'라는 주제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와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제농업박람회, 국제 교역·교류의 장으로

수입협회와 세계기업 연계 등 협약

전남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이 한국수입협회(KOIMA)와 국제적 협력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 '2023 국제농업박람회'를 국제 교역·교류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수입협회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품목을 발굴해 국내시장 공급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주한 외국대사관 및 해외 유관기관과 교류 확대를 위해 수출입 균형 무역진흥에 앞장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제단체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 국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주한 외국대사 초청 전남도 박람회 지지·홍보 ▲세계적

기업 간 거래 연계 서비스 ▲온라인 해외기업 상품관 운영 등에 협력해 국제농업박람회가 국제교류, 교역의 장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박홍재 전남국제농업박람회 대표이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한국수입협회의 전 세계 회원사에 국제농업박람회를 알려 해외 기업이 전남도와 비즈니스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며 "수출입 교역이 확대되는 세계적 교역산업박람회로 자리매김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 국제농업박람회는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을 주제로 10월 12일부터 11일간 전남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